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급변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민의 농촌¹⁾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여 년 간의 귀농·귀촌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생계를 위한 전농업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겸업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²⁾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귀농·귀촌 대해 기존의 지원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 정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충남지역으로의 귀농·귀촌동향분석, ② 충남 귀농·귀촌 행태적 특성, ③ 귀농·귀촌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면(面)지역 이하의 지역으로 설정함.

2) 베이붐세대란 전후(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이 여기에 해당됨.

II. 연구방법과 분석틀

1. 연구방법

1) 문헌고찰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대책과 관련된 자료, 귀농·귀촌 및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고찰했다.

2) 예비설문 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 진단 및 예비설문 항목 설정하고, 본 설문조사 설계를 위한 사전 예비설문조사 실시했다.

3) 설문조사 및 현지 인터뷰조사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청양군으로 귀농·귀촌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4) 통계조사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30개 면을 대상으로 2009년 1년 간 면별 전입자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2. 분석틀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 항목으로 귀농·귀촌 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기본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귀농·귀촌유형화를 위한 구분 기준은 이주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등을 기초로 하여 필자

〈표 1〉 귀농·귀촌 유형별 구분 기준

구분	전입 귀농형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노후 휴양형	도시 출퇴근형
이주목적	영농	영농 + 전원생활	농촌생활, 전원생활	휴양·요양	전원생활
거주형태	정주	정주	정주	정주	반정주
가계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영농형태	전업농	겸업농	겸업농	가정재원	가정재원
영농규모	대규모(1ha 이상)	중·소규모(0.5~1ha)	소규모(0.5ha 미만)	-	-
생활권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농촌+도시

가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표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유형을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Ⅲ. 충남지역 귀농·귀촌 동향 분석

1. 귀농인구(가구)의 변화

농림수산물부 및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귀농인구의 전국적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 IMF위기 이후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1999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수가 연간 약 4,000~6,000가구로 급증하였으나, 그 후 2005년까지는 연간 약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이상의 귀농자 비율이 '06년 22.0%, '07년 20.2%, '08년 23.8%로 2006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났다.

2008년 기준 과거 8년 간 시·군별 귀농가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천군이 14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주시(116세대), 논산시(106세대) 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한편, 계룡시, 아산시, 예산군 등의 귀농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귀농·귀촌의 인구학적 특성

1) 조사 대상지역 및 내용

충남 전체 16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⁸⁾를 제외한 15개 시·군별로 2개 면을 표본으로 선정 총 30개 면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전형적인 농산어촌의 특징을 가진 지역을 택하였다. 조사기준

연도는 2009년이다.

조사 내용은 2009년 1년 간 면별 전입자 규모, 성별, 연령별 비율, 전출지의 지역분포 등이다.

2) 조사 결과

(1) 면별 전입자 규모

조사 대상지의 전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산 웅암면이 1,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정미면 971명, 공주 반포면 871명 순이며, 서천 문산면이 140명으로 가장 적었다. 30개 지역 평균 전입자수는 518명이며 과반수가 300~700명 사이에 있다.

(2) 연령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18.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17.7%, 20~29세 17.5%, 40~49세 16.7%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전입자가 제법 많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 광덕면, 아산 영인면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지역과 홍성군 홍동면으로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3) 전출지 권역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에서 33.1%, 동일 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서 15.8%, 타 시·도에서 51.1%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해 왔다.

단, 특이한 점은 금산 복수면, 공주 반포면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는 두 지역 모두 대전시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충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4.7%로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유입한 지역이다. 그 외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의 경우 인근의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이 뚜렷이 많았으며, 공주 반포면, 금산 복수면, 금산 군북면의 경우는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서천 마서면의 경우 전북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타 시·도가

3) 계룡시에는 신도안면, 염사면, 두마면 3개의 면이 있으나, 신도안면의 경우 전주군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염사면, 두마면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외부 유입인구가 최근 급증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음.

4) 조사대상지역은 광덕면, 수신면, 반포면, 계룡면, 남포면, 청라면, 송악면, 영인면, 부석면, 웅암면, 광석면, 상월면, 군북면, 복수면, 전의면, 전동면, 장암면, 구룡면, 마서면, 문산면, 비봉면, 대치면, 홍동면, 홍북면, 응봉면, 오가면, 소원면, 이원면, 고대면, 정미면

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아산, 서천, 청양, 태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 이원면의 경우 예부터 인천지역과 연고가 깊은 탓인지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22.0%로 경기, 서울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1.0% 전후로 무척 낮은 비율을 보였다.

IV.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행태적 특성

1. 조사 개요

조사는 2010년 7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규모는 서천군 120명, 홍성군 40명, 금산군 30명, 청양군 22명 등 총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천군이 47부, 홍성군 16부, 금산군 9부, 청양군 6부 등 총 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유효회답은 서천군 39명(31.9%), 홍성군 16명(40.0%), 금산군 9명(30.0%), 청양군 6명(27.3%) 등 합계 70명(유효회답률 33.0%)이다.

2. 귀농·귀촌 실태

1) 귀농·귀촌의 목적

귀농·귀촌의 목적을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인간다운 삶을 위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22.1%,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 13.2%,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경우는 4.4%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등 농촌지역을 지향하는 응답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경향은 과거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이것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귀농·귀촌지선택이유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온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이 거주(고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많았다. 그 외 농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5.0%, 지인의 소개 10.0%, 마을 사람(귀농·귀촌인 포함)들이 좋아서 10.0% 라는 의견

이 있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고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41.3%로 매우 높았다. 그 외 농업조건이 좋아서(13.9%), 지인의 소개(11.6%),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리(9.3%)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농업조건이 좋아서가 42.9%, 젊은 귀농인이 많아서가 28.6%로 나타나 서천군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군, 청양군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26.8%, 4년 이상이 23.2%, 2~3년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0%가 2년 이하로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계소득

가계소득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이 11~50%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10% 이하인 경우도 33.9%로 나타나,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에 가까운 농업소득 비율이 90% 이상의 경우는 13.2%에 불과하다.

3. 귀농·귀촌 유형 및 특징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표1 참조).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향형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퇴귀농형 18.6%, 전업귀농형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천군의 경우 도시출퇴근형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홍성군의 경우는 전업귀농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또한 금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은퇴귀농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업귀농형

전업귀농형은 본격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5.7%(서천 10.3%, 홍성 25.0%, 금산 11.1%, 청양 3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영농만으로 가계소득을 얻으려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은 평균 74.0%로 대부분의 수입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약 1.54ha로 비교적 크며 과반수 이상이 경종(논농사+밭농사)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36.8%, 임차 63.2%로 임차비율이 높다. 또한 전업귀농의 형태로 이주한 자의 연령대는 30~40대가 63.6%,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9.1%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은퇴귀농형

은퇴귀농형은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 또는 퇴직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겸업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평균 18.6%(서천 12.8%, 홍성 6.3%, 금산 44.4%, 청양 50.0%)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비율이 평균 31.3%로 가계소득의 약 2/3를 농외소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규모는 평균 0.74ha로 전업귀농형에 절반 수준으로 작으며, 영농형태도 시설원예, 축산, 가공형태가 많고 경종형태가 적다는 것도 전업귀농형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61.6%로 전업귀농형의 36.8%보다 높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작아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유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 비율이 69.2%를 차지 하는 등 전업귀농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농촌지향형

농촌지향형은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40.0%(서천 43.6%, 홍성 56.3%, 금산 11.1%, 청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50대가 66.6%를 점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으며 출생지가 도시지역이 경우가 77.7%로 전체 유형 평균 53.9% 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귀촌 준비기간을 보면 65.4%가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율이 25.7%에 불과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후휴양형

노후휴양형은 은퇴 후 농촌에서 휴양 또는 건강을 위해 요양할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11.4%(서천 12.8%, 금산 33.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가 없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출생지를 보면 71.4%가 농촌지역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농촌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귀촌한 경우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가족 일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60.0%가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 영농규모가 0.33ha로 매우 작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원예 및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5) 도시출퇴근형

도시출퇴근형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 유형 가운데 5.7%(서천 7.7%, 홍성 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40~50대로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형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상시 농촌지역 거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궁극적 목적은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 목적, 수입원, 생활 형태, 영농 형태 등을 고려 귀농·귀촌행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과거 10년 간의 귀농가구 동향 분석 및 충남의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등 5개 유형을 도출,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3호.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2)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2009 「2009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 워크숍」 자료집
-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 귀농사례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학열, 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충남리포트 제40호, 충남발전연구원연구원
- 유학열·박철희·한상욱·조봉운(2007) 「영농 후계인력 영농정착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이민수·이승형·김명룡·김정섭(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재철·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보고서
- 정천섭, 2008 「귀농, 귀촌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 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과 농업 3호